

물리치료과 전문대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학습만족에 대한 조사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이 경 희

ABSTRACT

The Survey on the Motive of Entrance into a School and Satisfaction in Learning among the Students of the Physical Therapy Department in Junior College

Kyung Hee Lee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 Nam Health Junior Colle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is P.T. Department students and the way to get the result is questionnairing to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motive of entrance into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s affirmative in 78.76% of the students.
2. The rates of satisfaction about the learning circumstance are : 67.38% among the freshman & 55.45% among the sophomore aren't satisfied about the learning circumstance.

The reason of dissatisfaction is that the 42.11% among freshman are not interested in the study and 40% among the sophomore don't like the atmosphere of the class.

3. Because 55.95% among the freshman and 46.34% among the sophomore are deficient in a basic knowledge for their major study, 44.92% among freshman and 37.27% among sophomore's attitudes forwards their major study are negative.

42.25% among the freshman and 41.82% among the sophomore are in the science section when they were high school students.

They are fewer than the other section, but it isn't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the major study ($P > .05$).

4. They choose over three years for a suitable study (freshman : 94.65%, sophomore : 98.18%).

The reason is that they want the sufficient pursuit of learning and they want to do more practice.

5. The reasonable class members are : (the freshman : about 30~40 person, sophomore : less than 30 person)

They want a lecture as a teaching method including announcement and discussion among students(freshman & sophomore : 69.36%) .

6. 95.46% among sophomore aren't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practice, because of the deficient of practice time and the faithless of practice contents. The sophomore want that the reasonable complements to practice are less than 20 person(88.18%) .

7. The satisfaction rate for the cultural subjects ; 44.44% among the freshman & sophomore aren't satisfied, because of the formal lecture(freshman & sophomore : 70.45%) .

8. 83.16% of all think that their poor grades are owing to their poor way of study and neglecting their schoolwork.

9.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 14.14% of all is not good, because 69.05% among them have not enough conversation time.

차 례

I. 서 론

1. 조사대상
2. 조사방법
3. 조사도구 및 내용
4. 자료 처리방법
5. 연구의 제한점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고찰

1. 입학동기
2.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3. 전공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견해
4.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한
5. 학습지도
6. 실습과목
7. 교양과목
8. 성적부진
9. 교수와의 관계
10. 종합적 권의사항

I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교육법 제 128 조 2 항에 규정된 전문대학의 교육 목적을 보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

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대학은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출범하였지만 실제로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4년제 대학의 축소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¹⁾

이에 대하여 교육 개혁 심의회에서는 1987년도 정책 연구 과제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대학의 육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내용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전문대학의 기능 및 체제에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설치 목적이나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사회적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라 유형이 특성화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수업년한도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이다. 전문대학 학생들은 비교적 이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동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의 육성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각 과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전문대학 학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물리치료과에 대한 체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물리치료과는 1963년에 개설된 이후, 양적, 질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물리치

료를 요하는 장애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좀 더 심도 있는 전문지식과 치료기술을 요하게 되어서 결국 물리치료사의 양성기관인 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의 운영에 대한 제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물리치료과 전문대학생들의 입학동기를 알아봄과 동시에 현재 1.2학년 학생들의 학습 만족에 대한 사항을 비교 조사.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2,5)}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관한 문제를 우선 학생 스스로가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입학동기, 학과생활의 만족여부, 수업에 관한 문제 등을 알아보는 것은 본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업에 대한 부적응은 자신들의 문제점과 학과 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은 물리치료과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동남보건전문대학, 신구전문대학, 김천보건전문대학 등 3개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학생 297 명으로서 학년별, 남녀별 분포는 표 1 과 같다.

2. 조사방법

조사실시는 1989년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대학별로 별도의 시

표 1.

학 년	성 별		계
	남	여	
1 학 년	61	126	187
2 학 년	44	66	110
계	105	192	297

간을 얻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 설명이 있는 후 현장에서 직접 배부. 작성하게 한 뒤 즉시 회수하였는데 회수율은 100% 였다.

3.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지는 조사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학습 만족도에 관련된다고 사려되는 내용을 임의 작성한 설문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회수된 자료는 총 21 문항 전부를 각 문항별로 남녀별, 학년별로 빈도수를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백분율을 환산하였다. 남녀별과 학년별은 문항별 질문내용에 대한 특성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산정하였다.

반응도는 본 연구의 목적이 분포와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전원에 대한 반응분포 및 학년별의 반응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1) 본 조사의 대상은 전체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선표집하여야 타당하나 여러 사정으로 일부 학교 학생만을 표집화하였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조사된 내용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문항이므로 학생들의 문제와 의식을 일관성있게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료 해석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입학동기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낮은 사회적인 인식과 취업 및 진학지도 체제 등의 미비로 인하여 입학 동기가 다소 불분명하여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물리치료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입학동기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입학동기

구 분	학 년		계
	1 학년	2 학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므로	72	33	105
주위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104	57	161
취업이 용이하므로	81	37	118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41	20	61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8	5	13
해의 취업이 가능하므로	13	3	16
실력수준에 맞추어서	13	16	29
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15	10	25
별다른 이유없이 막연하게	20	13	33
기 타	4		4

본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입학동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되는 모든 문항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분율은 산정하지 않고 다만 빈도와 그에 따른 순위로만 해석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 학년 모두 주위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가 161 명으로 가장 많으며, 취업이 용이하므로 118명,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므로 105명,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61명, 별다른 이유없이 막연하게 33명, 실력수준에 맞추어서 29명, 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25명, 해의 취업이 가능하므로 16명,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13명, 기타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위 사람의 권유와 취업의 용이가 가장 많은 빈도수(279)를 차지하여 부정적인 동기가 압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과 적성, 흥미에 맞아서가 그 다음의 빈도수(166)를 차지한 것을 볼 때 긍정적인 동기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장수경 1985)⁶⁾와 비교해 볼 때, 이전보다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2 위도 결국 물리치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78.76%가 물리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입학한 것으로 해석할 때 학생들의 입학동기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장수경 1985)⁷⁾와 비교해 볼 때, 본인의 성적에 따라 선택하게 된 동기가 40% 이상에서 9.76%로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 3에서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학년의 경우 32.62%, 2학년은 44.55%가 만족하고 있으며, 1,2학년의 각각 10.16%, 9.0%가 불만족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학과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입학동기가 대체로 긍정적인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또한 총 9.76%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학년의 42.11%가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2학년의 경우는 40%가 학과의 분위기 때문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표 4). 이러한 결과는 처음에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보다 학과의 분위기에 더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현재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구 분	학 년	
	1 학년 백분율(실수)	2 학년 백분율(실수)
만족한다	33.62%(61)	44.55%(49)
그저 그렇다	57.22%(107)	46.36%(51)
만족스럽지 못하다	10.16%(19)	9.09%(10)
계	100.00%(187)	100.00%(110)

표 4. 현재 학과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유

구 분	학 년	
	1 학년 백분율 (실수)	2 학년 백분율 (실수)
장래성이 없기 때문	5.26% (1)	20% (2)
원만치 못한 교우관계 때문	15.79% (3)	10% (1)
교수와의 부조화 때문	10.53% (2)	
학과의 분위기 때문	10.53% (2)	40% (4)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	42.11% (8)	20% (2)
기 타	15.79% (3)	10% (1)
계	100.00% (19)	100.00% (10)

3. 전공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견해

물리치료 전공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학년의 48.13%, 2학년

의 59.09%인 과반수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나타냈으나, 반면 1.2학년의 각각 44.92%, 37.27%가 어렵다라고 나타냈다. 이에 표 3에 비추어 볼 때 학과 생활에서의 만족과 전공수업을 받는다는 어려움과는 대별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표 6은 전공과목 수업내용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총 42.09%의 이유를 나타낸 것인데, 1학년의 55.95%, 2학년의 46.34%가 전공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높은 이유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1학년은 의학적 용어문제의 어려움 때문 27.38%, 2학년은 학습해야 할 내용에 비해 과목별 수업시간의 배당수가 적기 때문 31.70%를 나타내었고 그 외 적성이 맞지 않음 때문 등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수업내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전공 기초지식을 위한 기초과목의 신설을 필요로 하며 또한 수업시간 배당수의 부족과 의학적 용어문제를 위한 학습시간의 조정 및 학습지도가 필요하겠다.

표 5. 물리치료 전공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견해

구분	학년	
	1 학년	2 학년
어렵다	44.92% (84)	37.27% (41)
보통이다	48.13% (90)	59.09% (65)
쉽다	3.74% (7)	2.73% (3)
흥미가 없다	3.21% (6)	0.91% (1)
계	100.00% (187)	100.00% (110)

표 6. 물리치료 전공과목 수업내용이 어려운 이유

구분	학년	
	1 학년	2 학년
전공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55.95% (47)	46.34% (19)
적성에 맞지 않음 때문	1.19% (1)	9.76% (4)
의학적 용어문제의 어려움 때문	27.38% (23)	12.20% (5)
학습해야 할 내용에 비해 과목별 수업시간 배당수가 적기 때문	15.48% (13)	31.70% (13)
기타		
계	100.00% (84)	100.00% (41)

표 7은 고교 재학 시절의 계열을 표시한 것인데 자연계는 1.2학년이 각각 42.25%, 41.82%로서 보건의계열에서 자연계보다 인문계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문계 출신의 학생이 자연계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어려움의 차이는 없었다($p > .05$).

따라서 고교시절의 계열선택은 전공수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공과목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설문지 7번 문항은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생각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기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내용은 임상운동학 20.91%, 해부학 16.36%, 질환별 물리치료 15.45%, 기능평가 12.73%, 기능해부학 10% 생리학 9.0%, 운동치료학 5.4%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학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빈도에 따른 해석은 하지 않고 다만 과목만을 나열한 것으로 고치고자 한다.

표 7. 고교 재학 시절의 계열

계열	학년	
	1 학년	2 학년
인문계	56.15% (105)	57.27% (63)
자연계	42.25% (79)	41.82% (46)
예·체능계	1.6% (3)	0.91% (1)
계	100.00% (187)	100.00% (110)

표 8. 전공수업에 대한 견해와 고교시절의 계열별과의 관계

구분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백분율(실수)	백분율(실수)	백분율(실수)
어렵다	39.2% (49)	44.05% (74)	50% (2)
보통이다	53.6% (67)	51.19% (86)	50% (2)
쉽다	5.6% (7)	1.79% (3)	
흥미가 없다	1.6% (2)	2.98% (5)	
계	100.00% (125)	100.00% (168)	100.00% (4)

4.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한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한으로는 1학년의 경우 3년(48.66%), 2학년의 경우는 4년(55.45%)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1.2학년이 기타를 제외한 총 95.96%가 3년 이상의 적합함을 표시했다. (표 9). 3년 이상이 적합하다고 표시한 총 95.96%의 285명에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중 83명만이 답을 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학

표 9.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한

구분 \ 학년		1 학년	2 학년
2년	백분율(실수)	5.35%(10)	
3년	백분율(실수)	48.66%(91)	42.73%(47)
4년	백분율(실수)	45.99%(86)	55.45%(61)
기타	백분율(실수)		1.82%(2)
계	백분율(실수)	100.00%(187)	100.00%(110)

표 10.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한 중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유

구분	빈도	빈도 백분율(실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학술 탐구를 위하여		37.35% (31)
좀 더 많은 실습을 위하여		26.51% (22)
전공의 어려움 때문		15.66% (13)
물리치료사의 자질 함양과 더불어 독립적인 치료를 위해		8.43% (7)
기타		12.05% (10)
계		100.00% (83)

술 탐구를 위하여가 37.35%로 가장 많은 이유를 나타냈고, 좀 더 많은 실습을 위하여 26.51%, 전공공부의 어려움 때문 15.66%, 물리치료사의 자질 함양과 더불어 독립적인 치료를 위해 8.4%, 그 외 대학생활에서의 여유를 갖기 위해, 국가고시위주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교양강좌 등을 듣기 위함으로 들고 있는데(표 10), 이는 결국 심도있는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물리치료과의 3-4년제로의 학제 개편은 학생들의 학습 만족과 물리치료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5. 학습지도

수업받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인원수는 1학년의 경우 62.03%가 30-40명이라 생각하고, 2학년의 경우 59.09%가 30명 이하라고 생각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80명 학급의 수업에서 40명 이하의 분반 수업의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12에서는 학습지도 방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로서 1.2학년 각각 68.98%, 70%의 높은 비율로 교수의 강의 위주에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하는 것이라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학습지도 방법은 달성한 목표의 유형, 학습자의 수준, 학급의 크기 학습할 내용, 사용 가능한 시간수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⁴⁾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려된다.

6. 실습과목

표 13과 표 14는 실습과목의 경우 실습내용의 만족여부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2학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2학년의 총 110명 중 만족한다가 4.55%, 그저 그렇다가

표 11. 수업받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학급 인원수

구분 \ 학년	30명 이하	30~40명	40~50명	50명 이상	계
	백분율(실수)	백분율(실수)	백분율(실수)	백분율(실수)	백분율(실수)
1 학년	33.69%(63)	62.03%(116)	3.74%(7)	0.53%(1)	100.00%(187)
2 학년	59.09%(65)	39.09%(43)	1.82%(2)		100.00%(110)

표 12. 학습지도방법

구분	학년	
	1 학년 백분율(실수)	2 학년 백분율(실수)
교수중심의 체계적 강의를 주로 한다	19.25% (36)	18.18% (20)
교수의 강의 위주로 하되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	68.98% (129)	70% (77)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을 위주로 하되 그에 따른 교수의 설명을 듣는다	11.23% (21)	10.91% (12)
기 타	0.53% (1)	0.91% (1)
계	100.00% (187)	100.00% (110)

표 15. 실습시간의 적정 인원수

구분	빈도	백분율(실수)
20명 이하		88.18% (97)
30명		9.09% (10)
40명		0.91% (1)
40명 이상		1.82% (2)
계		100.00% (110)

실습시간에 대한 적정 인원수는 20명 이하가 88.18%, 30명 9.09%, 40명 0.91%, 40명 이상이 1.82%로서 20명 이하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어 실습시간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실습을 위해서는 가능한 획급당 인원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7. 교양과목

표 16과 표 17은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표 13. 실습과목의 경우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실수)
만족한다		4.55% (5)
그저 그렇다		40.91% (45)
만족스럽지 못하다		54.55% (60)
계		100.00% (110)

표 16.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

구분	학년		
	1 학년 백분율(실수)	2 학년 백분율(실수)	계 백분율(실수)
만족한다	11.76% (22)	12.73% (14)	12.12% (36)
그저 그렇다	44.92% (84)	40.91% (45)	43.43% (129)
만족스럽지 못하다	43.32% (81)	46.36% (51)	44.44% (132)
계	100.00% (187)	100.00% (110)	100.00% (297)

표 14. 실습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실수)
실습시간이 부족하다		43.33% (26)
실습기재가 부족하다		20% (12)
실습내용이 충실치 못하다		35% (21)
기 타		1.67% (1)
계		100.00% (60)

표 17. 교양과목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구분	학년		
	1 학년 백분율(실수)	2 학년 백분율(실수)	3 학년 백분율(실수)
형식적인 강의 때문	70.37% (57)	70.59% (36)	70.45% (93)
시간수가 적기 때문	4.94% (4)	.	3.03% (4)
개설강좌수의 부족 때문	23.46% (19)	25.49% (13)	24.24% (32)
기 타	1.23% (1)	3.92% (2)	2.27% (3)
계	100.00% (81)	100.00% (51)	100.00% (132)

40.91%, 만족스럽지 못하다 54.5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총 60명 중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실습시간의 부족에 43.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습내용의 불충실 35%, 실습기자재의 부족 20% 순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실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에 전공과목과 더불어 시간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표 16에서 교양과목에 대해서 1,2학년 모두 13% 내외의 만족만을 표시하고 80-9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표 17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큰 비율은 형식적인 강의 때문(70.37%, 70.59%)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교양 과목은 실제로 교양을 쌓기 위한 강좌라고 하기보다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양강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좀더 실제적인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자신의 전공영역에 기초가 될만한 계열교양을 신설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좀 더 흥미를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인격형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수업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공을 중심으로 전공에서 파생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¹⁾고 하고 있다.

신설하기를 원하는 교양과목으로는 철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 2외국어, 그 외 컴퓨터, 논리학, 여성학, 특수교육 등이 있었다.

8. 성적부진

표 18에서는 본인의 성적부진에 대해서 원인을 묻는 것인데 1,2학년의 83.16%가 본인의 학습방법 및 소홀한 학업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기 때문, 친구, 가정 등 주변 환경문제 때문, 전공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성적부진의 원인을 학생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기

표 18. 성적부진의 원인

구 분	학 년		
	1 학년 백분율 (실수)	2 학년 백분율 (실수)	계 백분율 (실수)
본인의 학습방법 및 소홀한 학업준비	83.96% (157)	81.82% (90)	83.16% (247)
친구, 가정 등 주변 환경 문제	3.74% (7)	5.45% (6)	4.38% (13)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는다	8.02% (15)	7.27% (8)	7.74% (23)
전공에 대한 실망	4.28% (8)	3.64% (4)	4.04% (12)
기 타		1.82% (2)	0.67% (2)
계	100.00% (187)	100.00% (110)	100.00% (297)

초 지식의 부족, 학습방법의 잘못된 습관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방법에 대한 지도 및 지속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lausmeier는 학습목표를 알고 나면 체계적으로 발달하며, 동기유발이 긍정적이고, 직접 경험이 가능하며, 효과적인 실습을 할 수 있고, 또한 통찰력이 개발되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가치관이 함양되며 계속 학습으로 지식의 습득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성고가 높다²⁾고 하였다.

9. 교수와의 관계

표 19에서는 1,2학년이 대체로 그저 그렇다 61.62%, 아니면 원만하다 24.24%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원만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총 14.14% 학생의 이유를 나타낸 것이 표 20이다. 그 중 69.05%가 시간과 대화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학생과 교

표 19. 교수와의 관계

구 분	학 년		
	1 학년 백분율 (실수)	2 학년 백분율 (실수)	계 백분율 (실수)
원만하다	19.79% (37)	31.82% (35)	24.24% (72)
그저 그렇다	64.71% (121)	56.36% (62)	61.62% (183)
원만치 못하다	15.51% (29)	11.82% (13)	14.14% (42)
계	100.00% (187)	100.00% (110)	100.00% (297)

표 20. 교수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구 분	학 년		
	1 학년 백분율 (실수)	2 학년 백분율 (실수)	계 백분율 (실수)
학생의 회피	13.79% (4)	7.69% (1)	11.90% (5)
교수의 편견	3.45% (1)	7.69% (1)	4.76% (2)
시간이나 대화의 부족	68.97% (20)	69.23% (9)	69.05% (29)
마음에 드는 교수가 없기 때문		15.38% (2)	4.76% (2)
기 타	13.79% (4)		9.52% (4)
계	100.00% (29)	100.00% (13)	100.00% (42)

수와의 대화부족이 절실하게 요청됨을 알 수 있다.

10. 종합적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물리치료과의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개선하기를 원하는 내용에서는 실습기 자체 확충 및 충분한 실습 요망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다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로 물리치료의 전문성과 지위보장이 10명, 학제 개편 14명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그 외 실질적인 입학 정원 유지, 학생 자신들의 성의있는 학습태도 등 여러 각도에서 개선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이론과 실습면에서 좀 더 심도 있고 포괄적이면서 더욱 많은 수업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때, 결국 물리치료과의 학제 개편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좀 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업 적응도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물리치료과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점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3개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연구자가 학업 적응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실시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얻어 사전 설명을 한 후, 현장에서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문항별로 반응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빈도에 대한 백분율을 산정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물리치료과에 대한 입학동기는 78.76%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학년이 32.62%, 2학년이 44.55%가 만족하고 있으며, 1.2학년 각각 10.16%, 9.09%가 불만족하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1학년의 42.11%가 능력과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2학년은 40%가 학과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3. 전공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견해는 1학년의 경우 44.92%, 2학년의 경우 37.27%에서 어렵다고 나타났다. 어려운 이유로는 1학년의 55.95%, 2

학년의 46.34%가 전공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1.2학년 학생의 고교재학시 계열은 1학년의 57.75%, 2학년의 58.18%로 인문계에 체능계가 자연계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전공수업의 어려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다($p>.05$).

4.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한은 1학년의 94.65%, 2학년의 98.18%가 3년 이상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직으로서의 충분한 학문탐구를 위해서 3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좀 더 많은 실습을 위해서가 26.51%로 나타났다.

5. 수업받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수는 1학년의 경우 30-40명에 62.03%, 2학년의 경우 30명 이하가 59.0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지도 방법으로는 1.2학년의 69.36%가 교수의 강의 위주로 하되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가 차지했다.

6. 실습과목의 내용에 대해 2학년의 경우 95.46%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실습시간의 부족이 43.33%, 충실치 못한 실습내용 35%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시간의 적정 인원수로는 20명 이하가 86.87로 나타나 실습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7.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1학년은 88.24%, 2학년은 87.27%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형식적인 강의 때문이라고 70.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개설 강좌수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8. 성적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1.2학년의 83.16%가 본인의 학습방법 및 소홀한 학업준비라 생각하므로 이에 적절한 학습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9. 교수와의 관계는 1.2학년의 과반수 이상(61.62%)이 그저 그렇다라고 나타내 상호간의 무관심을 드러냈으며, 14.14%를 차지하는 원만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이유로는 시간과 대화 부족으로 69.05%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입학동기가 비교적 긍정적이며 학과생활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전공과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전공기초 과목에 대한 강좌의 신설 및 강좌수의 증가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실습과목의 경우에도 실습시간의 부족을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물리치료과 수업년한의 부족으로 집약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낮은 성취 동기가 학업성취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영환 : 전문대학의 직업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 2권 제 1호, p. 19, 1983.
2. 김영환 : op. citij
3. 교육개혁심의회 : 전문대학 육성방안. 정책연구 III-4, p. 59, 1987.
4. 이무근 : 전문대학교육론. 배영사, p. 132, 1985.
5. 이채구 : 전문대학생의 전공분야별 적응도 및 직업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2.
6. 장수경 :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전공 학습 만족여부 및 취업희망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 6권 제 1호, pp. 29~39, 1985.
7. 장수경 : op. citij
8. 황순철 외 2인 : 전문대학 경영과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5집, pp. 93~94.
9. Klausmeier HJ : Teaching in the secondary school.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p. 65~118, 1958.

< 부 록 >

설 문 지

본 조사의 목적은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업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자료는 현재 물리치료과의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연구목적에 위한 것이므로 물리치료과의 발전을 위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989. 8.

연구자 :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연구실

이 경 회

성별 : (남, 여)

학년 : (1 학년, 2 학년)

연령 : 세

『기입요령』

1.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 곳에만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번은 제외).
 2.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간단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1. 물리치료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 문항에서는 해당되는 것 모두에 ○표)
 - (1)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므로
 - (2) 주위 사람의 권유로 해서
 - (3) 취업이 용이하므로
 - (4)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 (5)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 (6) 해외 취업이 가능하므로
 - (7) 실력수준에 맞추어서
 - (8) 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 (9) 별다른 이유없이 막연하게
 - (10) 기 타
 2. 현재 학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 (1) 만족한다.
 - (2) 그저 그렇다.
 - (3) 만족스럽지 못하다.
 3. 현재 학과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장래성이 없기 때문
 - (2) 원만치 못한 교우관계 때문
 - (3) 교수와의 부조화
 - (4) 학과의 분위기 때문
 - (5)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
 - (6) 기 타()
 4. 물리치료 전공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견해는?
 - (1) 어렵다.
 - (2) 보통이다.
 - (3) 쉽 다.
 - (4) 흥미가 없다.
 5. 위 문항에서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전공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 (2)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
 - (3) 의학적 용어 문제의 어려움 때문

- (4) 학습해야 할 내용에 비해 과목별 수업시간 배당수가 적기 때문
(5) 기 타 ()
6. 고교 재학 시절의 계열은?
(1) 인문계 (2) 자연계 (3) 예·체능계
7. 전공과목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2 학년만 답하십시오)
()
8. 물리치료과의 적합한 수업년 한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 2년 (2) 3년 (3) 4년 (4) 기타
9. 위 문항 중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
10. 수업받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학급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1) 30명 이하 (2) 30~40명 (3) 40~50명 (4) 50명 이상
11. 학습지도 방법은 어떠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 교수중심의 체계적 강의를 주로 한다.
(2) 교수의 강의 위주로 하되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
(3) 학생의 발표 및 토론을 위주로 하되 그에 따른 교수의 설명을 듣는다.
(4) 기 타 ()
12. 실습과목의 경우 실습내용에 대해 학생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1) 만족한다. (2) 그저 그렇다. (3) 만족스럽지 못하다.
13. 위 문항 중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습시간이 부족하다. (2) 실습기재가 부족하다.
(3) 실습내용이 충실치 못하다. (4) 기타 ()
14. 실습시간의 적정 인원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 20명 이하 (2) 30명 (3) 40명 (4) 40명 이상
15.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양과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1) 만족한다. (2) 그저 그렇다. (3) 만족스럽지 못하다.
16. 위 문항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형식적인 강의 때문 (2) 시간수가 적기 때문
(3) 개설 강좌수의 부족 때문 (4) 기타 ()
17. 현 교양과목외에 신설하기를 원하는 교양강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18. 본인의 생각에 성적 불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본인의 학습방법 및 소홀한 학업준비 (2) 친구, 가정 등 주변 환경문제
(3)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는다. (4) 전공에 대한 실망
(5) 기타 ()
19.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입니까?
(1) 원만이다. (2) 그저 그렇다. (3) 원만하지 못하다.
20. 위 문항에서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생의 회피 (2) 교수의 편견 (3) 시간이나 대화 부족
(4) 마음에 드는 교수가 없기 때문 (5) 기타 ()
21. 이상의 문항 이외에 물리치료과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개선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쓰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